

##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용어 수정에 대한 수정 조치]

3월 14일 <[뉴스분석]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업' 경기도 내 80% 포기> 기사에서 <현재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그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법무부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등에 그친다. 더욱이 불법 체류자는 대부분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여전하다>고 보도하였으나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혐오 발언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 조치.

### [법원 판결에 의한 반론보도]

2021년 5월 26일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재추진...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종땅 매각 '잡음'> 기사에서 해당 종종이 토지매각 공고 당시 최고가 입찰 방식을 내놓고 결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지스힐은 종종의 규약과 각각의 의결기구의 승인 절차 및 약정서 제출에 의한 재입찰 절차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라 밝혔고 해당 교육지원청은 부지가 학교 설립 예정지로 검토 중인 5곳 중 1곳이라고 한 내용이 밝혀졌으므로 반론보도 처리.

### [해명에 관련한 기사 수정]

6월 30일자 <마약치유센터 '무단 이전' 논란... 파악 나선 보건당국 "내주 고발"> 기사를 통해 경기도 다르크 측이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겨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다르크 측에서 <보건당국에 '무단 운영' 사실에 대한 적발에 대해 2달 무단 운영은 인정하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 사유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해당 기사 보완 수정 조치.

### [취재 과정서 발생한 오류 수정]

8월 3일 <가득 태워도 적자, 속 태우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사에서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에 운영 중인 5개 도시철도 노선이 기록한 지난해 적자액은 598억원에 달한다. 용인경전철이 -284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남선(하남구간)이 -17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의정부경전철 -89억원, 7호선(부천구간)이 -46억원으로 큰 적자를 보였다>고 보도했으나 취재 과정서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84억원을 -46억원으로 불러줘 기사에 잘못된 정보가 게재됨. 이에 따라 오류 수정.

### [언론중재 시정권고에 의한 반론보도]

8월 24일자, 28일자 <물탱크 차량 추돌 버스... 실상은 "불법 노선운행"> 및 <여행사의 전세버스 활용 놓고 여객자동차법 vs 관광법 '총돌'>이라는 제목으로 공항버스가 물탱크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버스가 불법 노선 운행 중이던 전세버스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버스 사고는 4차선 도로 갓길에 걸쳐 불법 정차했던 물탱크 차량을 추돌한 것이고, 사망사고는 이후 타 차량의 2차 가해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정정 처리.

### [언론중재 시정권고에 의한 반론보도]

9월 5일자 <발코니에 경로당이 웬 말? 광명 한 아파트 '불법 증축'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광명시 한 아파트단지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며 경로당 내 할아버지 휴식공간 이전문제 2년 넘게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로당 회원과의 갈등은 대체로 해소되었고, 단지 내 돌봄센터는 전체 주민의 56.5% 동의로 정당하게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 처리.

[고충처리 신청을 통한 수정]

2017년 10월 23일 <[G-드론 페스타] 청소년부 우승자|하남 남한고 이준휘>라는 기사에 대해 고충처리위원을 통해 <초상권의 이유로 과거 신청인의 이력과 모습들을 인터넷상의 기록에서 지우길 원함> 이라 밝혔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바 기사 삭제 조치.

[직접 연관 없는 내용 삭제 요청]

10월 25일 게재된 <마음씨도 골드 글러브 김하성 야구장 생기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에 대해 김하성 선수 매니지먼트에서 김 선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며 기사 삭제를 요청해와 삭제 처리.

[취재원 요청에 의한 제목 수정]

11월 13일자 인천 사회면 헤드라인인 <[일상 속 편의점, 범죄 표적되다] 여성 점주의 절박한 SOS에 경찰은 주소만 되물었다> 기사에서 취재원의 제목 수정을 요청한 바 <[일상 속 편의점, 범죄 표적되다] '문지마 폭행'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점주>로 수정 처리.